

심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영원한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당신을 초대 합니다.

새벽기도

매일 새벽 5시, 6시 생명의살 QT로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원하시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셀 모임

매주 금요일 10시 여성 구역 셀모임이 있습니다. 셀모임 자료가 매주 화요일에 올라오니, 예수/복습에 활용하세요.



“Q.R코드를
찍으면 은혜가
보입니다”



주일예배

김성택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확인하세요.



중보기도

영혼교인 여러분, 교회 사역에 동참하시고 중보기도 요청에 같이 참여해 주세요.

※ QR코드 사용 안내 : QR코드 App을 설치하시고(T스토어 등 이동통신사 App Store, 애플 App Store, 구글 Play 스토어) App으로 사진을 찍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 회 소 식

자녀를 위한 온가족기도회

- 일 시 : 2월 26일(수) ~ 28일(금) 오후 7:30
- 장 소 : 영흥교회 본당

실버대학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제3기 새신자교육

- 일 시 : 3월 2일, 9일, 16일, 23일(주일) 오후 10:00
- 장 소 : 시온성전

학습세례교육

- 일 시 : 3월 30일, 4월 6일, 13일(주일) 오후 10:00
- 장 소 : 시온성전

청년부 주간 성경퀴즈대회

- 일 시 : 4월 6일(주일) 오후예배
- 범 위 : 마태/마가/누가/요한복음, 사도행전

부활주일

- 일 시 : 4월 20일(주일)

유아세례식입교식

- 일 시 : 5월 4일(주일) 오후예배

어린이 찬양대회

- 일 시 : 5월 11일(주일) 오후 3시

영흥교회가 전하는 행복이야기

살구나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성막금 촛대 등잔이 살구꽃 형상, 새 생명과 깨어남의 뜻

아름답게 접키며 모범을 보이시는 영흥교회 '꽃보다 할매', '꽃보다 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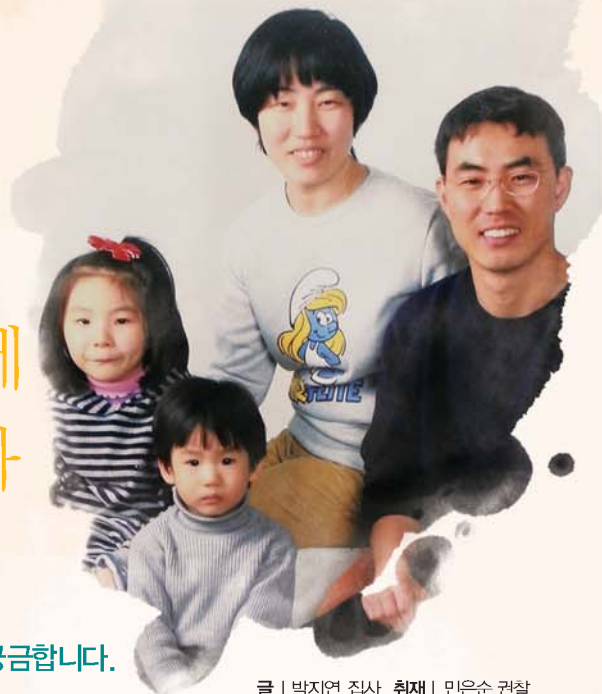
실버대학 나들이

쭈니의 스케치북 『주신 재능에 감사하자, 박지연 집사』	2p
생명의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5p
마르다의 밥상 고향의 향수 공니물잡채, 이정미 집사	9p
땅끝까지 『주께 돌아와 복음 들고 나아갈 민족, 회족』	12p
믿음생활faq 『창조론 vs. 진화론』	16p
영흥백일장 『신을 찬양하는 노래·찬송가, 이가호 청년』	19p
나의 QT 나는 연애 중, 곽명분 권사	22p
살림의 여왕 『예쁘고 건강한 봄을 위한 유용한 TIP』	24p
나의간증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광숙 집사』	26p
목회 칼럼 『다시 시작해 볼까요?』	30p
말씀으로크는가정 『중2병』	31p
영흥소식 『실버대학 - 2014년 개강, 김윤남 권사』	34p

2014년 3월호

주신 재능에 감사하자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재능에 감사하고
어떻게 영광 보이실지 궁금합니다.



글 | 박지연 집사 취재 | 민은순 권철

안양 석수동으로 이사 오고 얼마 안 되어 큰 딸아이 은수가 아빠와 동네를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더니 미술학원을 보내달란다. 얼마 안 다니고 안 간다고 하면 손해겠다는 생각에 한 달만 있다가 가자고 얘기했더니, 어디 있는 00학원을 가겠다고 한다. 한달 뒤 또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몇 번을 조르고 졸라서 미술학원에 다니게 됐다.

너무 신나는 은수~!! 그렇게 좋은가 허긴네 살 때 부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색칠도 잘 한다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학원비까지 포함해서 생활비가 얼마나 나가야 하는지 계산했다. 그렇게 졸라서 일년 정도 다닐 무렵부터 학원에서 미술대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기특하게도 그 일년 정도가 지나고 대회에 낸 그림들마다 상을 받기 시작했다. 난 우리 딸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아니지만, 상을 받아오니 내가 상을 탄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내 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신 재능에 감사하며 얼마 안되지만 감사 현금을 드렸다. 처음 한 두 번 상을 받을 때마다 감사현금을 드렸는데 상을 더 자주 받아왔다. 우리가 감사하면 더욱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시다.

그렇게 자주 상을 타오니 그것도 좀 식상한지 남편은 은수에게 상장 말고 상금으로 좀 갖고 오라고 우스개 소리를 한다. 허긴 다 상장만 있고 상금은 없는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 특선 ~ 제일 컸던 최우수상도 상금은 없었으니... 내 욕심이 너무 과한 듯 싶다. ^^)



첫 당선작



현대자동차에 선당선작

한번은 현대자동차에서 협찬하는 그림대회가 있어 그림을 그려서 낸 적이 있다. 예선과 본선이 있는 대회였다. 은수의 그림이 예선에 당선되어 본선에 나가야 되었는데, 본선이 주일이라 나는 은수에게 아빠와 함께 가라고 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은수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 은수에게 “은수야, 본선이 주일인데 어떡하지? 아빠랑 같이 갈래? 어쩔래?” 하고 물었더니 “응? 주일이야? 어떡하지? 음~~~ 안 갈래.”하고 대답한다.

그래도 내 욕심에 아빠랑 같이 가서 그리고 왔으면 하는 쪽으로 맘이 좀 더 기울어 있었는데 은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도 혹시 하는 맘에 일주일 뒤에 또 본선 전날 다시 물어봤다.





최우수상 작품

은수는 안 간다고 똑같은 대답을 했다. 그제야 내 마음에 혹시나 하는 욕심을 접을 수 있었다. 그렇게 결정하고 주일에 교회로 오니 마음이 더욱 은혜롭고 은수에게 주일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은수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상품에 욕심이 생긴 것 같다. 작년 여름에 대회 그림을 그리

는데 대회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상품이 있었다. 상품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인데 껌ㅇ탭, 닌텐도, 게임기, 컴퓨터 등등 이라 은수는 이중에 껌ㅇ탭을 받고 싶어 했다. 집에서는 게임을 하면 엄마에게 혼나기에, 받으면 자기꺼라고 혼자 놀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는 상품 없는 그냥 입선이었다. 학원에 아이들 모두 입선이었다. (은수야 안됐다~ 물 건너갔네~) 다음을 기약해 보자. 재능을 더 키워서~ 아자! 아자!



내가 보기엔 아직 스케치도 좀 더 잘 했으면 좋겠고 색깔 쓰는 것도 더 다양하게 했으면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은수는 다른 아이들하고 틀리게 그리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리는 것을 보면 재미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길래 그런가 하고 은수 그림을 은수의 시각에서 보려고 애쓴다. 하나님은 은수에게 주신 재능에 감사하고 어떻게 영광 보이실지 궁금하다. 다음엔 상장과 함께 상금도 받아왔으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여,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도서 4:9-12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약육강식(弱肉強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는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나, 큰 힘을 가진 공동체를 찾고, 그 안에서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리는 다릅니다. 성경은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가졌다고 스스로 고백 합니다. 바울에게 그 가시는 너무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사탄의 자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고통스러워 기도를 하는데, 그 사탄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세 번이나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받은 은혜가 그 정도면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기
를 “능력은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하여 진다”고 말씀을 한 것 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에도 오히려 그 가시를 가지고 살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
울에게 “약하게 살자, 약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사람들은 약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수치스럽게 여
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응답하셨고
바울은 수치심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
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약할 때가... 강함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약함
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선지자는,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사 53:2)”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허약한 분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약한 줄
기를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한때 애굽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웠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식을 배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40년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약해진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용되어야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연약한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혹시, 다윗의 아돌람 공동체를 기억하십니까(삼상 22:1-3) 아돌람 공동체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온 사람들이 숨어있던 아돌람 굴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돌람 공동체는 다윗을 찾아 사울왕과 힘있는 자들의 구박을 피해서 도망 온 사람
들입니다. 가난하고 학대를 받던, 빚을 지고 억울한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힘을 갖진
못한 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돌람 공동체였습니다. 아돌람 공동체에 믿을 만

한 사람은 다윗 한사람이었지만 다윗도 도망치다가 블레셋 왕에게 붙잡혀 살기위해 정
신 나간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척하다가 겨우 도망쳐온 신세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돌람 공동체는 소망이 없을 정도로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지들의 무리였었고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하고 힘없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던 아돌람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다
윗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돌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다윗의 왕국은, 이스
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고 힘이 있고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주위나라를 벌벌 떨게 하던 다윗의 왕국은 사실 약하고 힘없어 조롱을 받던 아돌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아돌람 공동체로 가장 넓은 영
토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도 어부들과 세리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도 처음에는 너무 미약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은 다
떠나고 공동체도 깨져서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공동체가 마가 다락방
에서 다시 세워집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 공동체
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의 공동체를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결국 세상을 장악하는 공동체는 힘이 있고 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작고 힘없는 보잘
것 없는 공동체가 세상을 장악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쾌락을 따라가고 오락과 음란을 즐기는 공동체가 우후죽순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돈 있고, 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고위급의 사람들 일까요? 돈과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수 천년간 애를 썼지만 여전히 세상의 악한 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약하고 작은 힘이지만 교회가 이 세상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째, 약함은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넘어지고 반드시 필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달라지는데 10절에서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넘어진 한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에 홀로 있다면 춥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서로의 체온을 나누어 주어서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남극에서 황제 펭귄들이 얼음 폭풍이 몰려 올 때 허들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빙빙 돌면서 모여 있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추위에 체온 유지가 안되지만 수 천 마리가 모두 모여서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한 마리의 펭귄이면 죽겠지만 모이니까 영하 수 십도의 추위를 이겨내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서 “한 사람이 전쟁하면 패하고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은 약한 우리가 모여서 큰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서 기도해도 되겠지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중보하면 더 쉽게 됩니다.

연약한 나 혼자서는 큰 일을 이룰 수 없겠지만,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인다면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비전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콩나물잡채

글 | 이정미 집사
취재 | 박정란 집사

“젓가락 길이는 서로 길고 짧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음으로 같이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과 마음의 길이는 딱 맞아 있습니다.”

콩나물잡채는 지금은 그리워도 맛보기 힘든 음식 중 하나가 되어버렸지만, 옛날 내 어릴 적 고향집 잔칫상엔 어김없이 올라오던 음식이었다. 내 고향 전라도 작은 시골동네, 경사스런 잔칫날이면 노랑머리에 하얀 몸매를 뽐내던 콩나물이 화려한 변신을 시도한다. 대체 콩나물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러분들, 혹시 콩나물 잡채의 출생의 비밀을 아시는지요? 물에 불린 콩과 타고 남은 재위에 주인의 애정 가득 담긴 손길로 물을 흠뻑 주며 습도를 맞추면 시루 안에서 콩나물이 나오는데, 아 글썽 요놈들이 먼저 나오겠다고 어찌나 머리싸움을 하는지... 허허.. 그러다가 어머니의 큰손이 시루 안을 훑고 지나가면 등성등성 콩나물자리가 비어가요.

어머니 손안에 간택된 콩나물들은 깊은 어머니의 손맛에 의해 담백함 맛이 일품인 무침이나 일큰한 찌개 위에 하얀 몸매를 그대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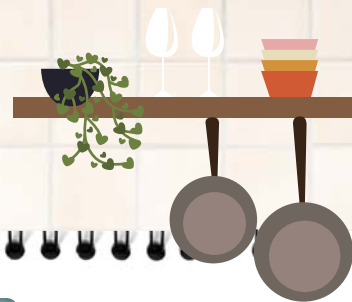


어 손님을 부를 땐 입맛 도는 빠알간 색깔에 여러 가지 야채와 더불어 새콤달콤 색다른 별미로 태어나는데 바로 그 녀석이 콩나물 잡채랍니다. 다른 지방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전라도에서는 새콤달콤한 콩나물잡채가 꽤 유명하답니다.



해질녘 두루 모여 그리 크지도 넓지도 않은 둥그런 밥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 지며 한 젓가락씩 집어먹던 그 맛~! 음~~ 옛 기억 속,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콩나물잡채 생각에 입안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젓가락 길이는 서로 길고 짧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음으로 같이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과 마음의 길이는 딱 맞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며 봄이 오는 소리가 시작되는 요즘 고향의 향수가 더 그리워지네요.

유년시절 동무들과 함께 푸룻푸룻해지는 뒷동산을 뛰놀다 보면 저 쪽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따라 동네를 내려다보면 크고 작은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 오르고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도 피어 오릅니다. '아가야~! 미~야~!'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포근한 소리지요. 오늘따라 어머니가 해주시던 새콤달콤한 콩나물잡채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 재료 :** 콩나물, 무, 고사리, 미나리, 다시마, 대파, 마늘 양념으로 생강가루, 식초, 설탕, 매실청, 고춧가루, 소금, 통깨

- 1 콩나물 머리와 꼬리를 떼어 비린내가 사라질 정도로 삶고, 미나리는 끓는 물에 넣었다 바로 건져주세요.
- 2 무는 가늘게 채로 썰고, 준비한 고사리는 삶고, 다시마는 끓는 물에 데쳐 채 썰어주세요.
- 3 대파는 어슷썰기로 준비해주세요.
- 4 대파를 뺀 나머지 재료에 고춧가루로 먼저 버무려 고춧물을 들인 다음 나머지 양념을 첨가해요.
- 5 마지막으로 대파와 통깨를 넣고 마무리합니다.

[Tip]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시려면 맨손으로 쓱쓱 버무려 보세요~
일주일이상 냉장고에 두고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주께 돌아와 복음 들고 나아갈 민족, 회족

회족이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생명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일어날지어다!!

글/취재 | 이이미 집사

1.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중국 최대 무슬림 종족

7세기경 실크로드를 따라 아랍과 페르시아로부터 건너온 이슬람 외교관, 상인들과 군인들이 중국의 한족여성과 결혼하거나, 한족의 어린이 입양을 통해 중국 땅에 뿌리내리면서 오늘날 약 1,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족의 '회' 자는 회교(回教), 즉 이슬람교의 중국식 표현으로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1300년의 역사 가운데 얼굴과 외모, 언어도 모두 한족화 되었지만, 중국에서 여전히 이방인, 소수민족이기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선조들의 고향 아랍과 '베카'를 지금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인 청진사를 중심으로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여 회족이 사는 곳 곳곳에는 사원이 세워져 있고 한 도시에 2,000여 개의 사원이 있기도 합니다.

2. 회족의 종교



이슬람교 96%, 무신론 4%로, 공식적인 복음화율은 0.003%입니다. 현재 몇몇 선교사 가정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극소수의 회족 사람들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족에게 있어 이슬람교는 종교이자 문화요 삶이지만, 사실 이슬람에 대한 기초적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주창하는 이들이 중국 전역의 캠퍼스와 농촌을 다니며 무료 이슬람 교육을 시행, 회족들에게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슬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 정부는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아랍연맹으로부터 약 2천조원을 지원받아 회족이 사는 '용닝'에 '세계무슬림시티'를 2012년 1차 완공하였고, 2020년까지 최종완공 예정으로 건립 중입니다.



3. 회족을 향한 새로운 소망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하게도 회족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영접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연 강우량 200mm 이내로 비를 보기 힘든 척박한 회족 땅에 기도하는 무리들을 통해 약 한 달간 여러 차례 하루 종일 내리는 단비를 보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최대 무슬림시티가 건립되는 용닝시에 인명피해가 없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통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들에게 마지막 시대와 천국 복음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회족에는 생명의 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 회족을 단기 선교로 다녀와서

저는 1월에 회족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고 중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비밀 병기로 감추어 놓았던 민족이 회족이라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G도시에 도착해서 한적하고 높은 곳을 찾아 갔습니다. 가보니 공동묘지였습니다. 우리는 당황스러웠지만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 땅의 영혼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땅의 영혼들이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예배 후 마을로 향해서 내려갔는데 2명의 회족 아이들과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보고 반기워해주며 자신들의 집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 가정은 아빠가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가서 외롭게 지내는 엄마와 초등학교생인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시댁에서 쫓겨난 엄마의 여자 친구가 놀러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 까지 교제하고 찬양부르고 마시지를 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쉽게 그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믿기지 않아 여러번 확인했는데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성경을 선물로 주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족을 여러번 방문했던 지체들의 얘기로는 이런 일들은 회족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회족은 그동안 복음에 대해 강박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문했던 가정 대부분이 모두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자리에서 성경도 함께 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추수의 때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족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사9:3)"

1300만 회족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에 회족을 섬기기에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국 남방 지역의 한족 교회들이 회족을 섬기기 위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어져 추수의 때가 임한 이 땅에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뿐만 아니라 회족과 세계교회에 함께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회족이 복음으로 일어나 중국을 넘어 아랍과 페르시아와, 땅 끝까지 전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생명의 민족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족이여 구원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생명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일어날지어다!!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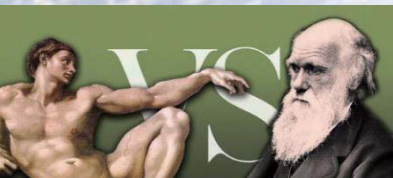
- 1 이슬람을 믿는 회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회족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 가도록!
- 2 이 은혜의 때에, 중국 전역 1,300만명 회족을 섬길 중보기도자와, 학생선교사, 단기선교팀, 장단기선교사들, 추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회족이 살고 있는 각 지역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창조론 VS. 진화론

글 | 담임목사 김성택
취재 | 문중순 성도



Question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론을 믿지만, 간혹 창조론이 틀렸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에 진화론과 창조론 어떤 것이 타당하고 여기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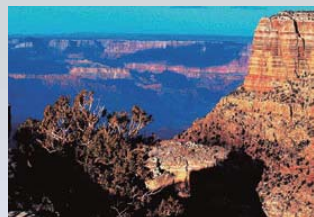
Answer 진화론은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적이라 신뢰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과학적 근거를 가진 생명 기원의 중요한 원리라고 믿습니다. 진화론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와 연구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신뢰는 사람들은 원숭이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 하는 진화론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창조론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 믿음이 창조론의 가장 큰 약점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모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신앙적을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가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장 비과학적이고 맹신적인 사람으로 비쳐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진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을 절대 끝나지 않는 진흙탕의 싸움일 뿐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론을 확신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창조론을 설명합니다.

시간창조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 천지창조의 3째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들어 하늘을 주관하게 하면서 사람들은 하루, 한 주, 한 달, 일 년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째 날의 창조의 시간까지 하루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천지창조 3일까지는 3일이 될 수도 있고, 수백일, 수천일, 수 만년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징적 7일 창조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 년같이, 천 년이 하루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적인 관념이 7일 창조의 시간이 단지 7일이 아니라 7일이 암시하는 것은 수천 년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연과학과 창조론의 창조의 과정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창조설

자유주의적인 가설로써 자연과학에서 밝혀진 사실대로 창조의 과정은 진화론의 과정을 압축해 놓은 것이 창조론 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창조론을 믿어야 하는 것은 인간들은 동물들이 가지지 않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며, 내면에 마음(하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세상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앙의 산물일 뿐이다.

주권적 창조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을 아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결혼의 적령기에 접어든 청년으로 창조했다. 즉 아담의 실제 나이는 0살이지만, 육체는 이미 결혼 할 수 있는 청년기의 육체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산을 이루고 강을 형성하고 있고 나무가 고목이 되기 위해서 수백년과 수천년의 시간이 지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지금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아래 인간의 과학을 편입시킨 좋은 설명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적, 합리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창조론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다.

창조론

창조론은 두 가지로 부분창조와 완전창조로 나뉘어진다. 첫째, 완전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절대적인 신앙을 따른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따른다.

둘째, 부분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질서를 세우셨지만 약간의 진화와 퇴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돌연변이가 생겨도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계속 남을 뿐이지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지만 아담의 후예들은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누어졌고, 또 각각의 민족에 따라서 다른 외형적 특징을 가지는 부분 진화와 퇴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찰스다윈의 진화론과 전혀 다른 것이다.

전통 신앙은 <하나님 주권적 창조설>과 <부분창조>의 이론을 성경적인 관점에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적인 시도를 하는 것도 미련한 신앙이라고 할수 있다. 하나님은 과학의 조건에서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즐겁게 찬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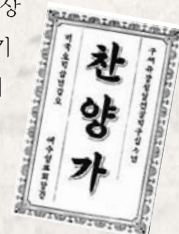
글 | 이가호 청년 취재 이해진 집사

말씀은

잘 모르는 저 같은 청년들에게는 예배 중 찬송을 부르는 시간은 목사의 설교 이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는 개신교에서 부르는 성가이며 찬양가 또는 찬미가라고도 불려집니다. 찬송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감성과 이성의 경계에서 미묘한 줄다리를 하는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기선교팀과 함께 양화진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지루한 영상 시청을 한다가에 무서운 이재선 청년부 회장의 시야를 벗어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발견한 팜플렛을 보고 안 사실입니다. 찬송가는 한국 기독교 태동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선시대에 이 찬송가라는 장르는 말도 안돼 보이는 장르였을 것 같습니다.

초기 찬송가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소개한 것으로





‘예수사랑하심’,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 단 두 곡으로 시작되어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모두 117개 곡이 담긴 최초의 찬송가, <찬양가>가 출판되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엄청난 수요와 공급으로 인한 음악의 활성화는 오늘날 콘텐츠의 다양함을 앞세우고 있으며 음악의 파괴력과 영향력은 요즘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한 음악시장의 활성화는 교회음악의 활성화를 일으키는데 한 몫을 했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의 교회음악의 트렌드, CCM이라 불리는 이 장르의 포괄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가요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며 경건해 보이기도 하며 열정적인 이 장르는 많은 것을 포용하고 있으며 이에 교회의 많은 청년들은 이 장르를 좋아하며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적 취향은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의 믿음 있는 청년들과 다르게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좋아한답니다. 특히 베토벤과 드보르작을 매일 들으며 일하고 공부하며 삶을 회복합니다. 베토벤의 웅장함, 브람스의 압도적 힘, 드보르작이 보여주는 신세계, 하이든의 유려함 등 이러한 클래식 음악은 언제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서 제게는 밋 없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클래식 칼럼도 자주 보며 사회 이슈도 챙겨보는데 예전 MBC 이재훈 피디가 쓴 칼럼 중 ‘노동자는 클래식 들으면 안되나?’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노동계층이 양복입고 클래식을 들으면 안되나? 라는 반문은 클래식은 언제나 자유를 이야기하고 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고귀한 취미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의 개인의 소견이었고 서민의 음악이며 거리의 음악이기도 한 이 클래식이 한껏 빼어 입고 음악회장에 앉아 감상하는 것이 아닌 바로 ‘거리’에서 들려 올 때에 최고로 고결한 음악이었다 라는 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편견을 경계하라!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아이러니하게 ‘클래식은 노동자들이 들을 수 있는 서민적 음악이다’라고 생각한 제가 클래식 이외의 음악은 천박하고 기품 없어 보인다고 느끼는 편견을 갖게 된 것이죠.

제가 들은 클래식의 찬송은 찬송가에 실려 있는 기뻐하며 경배하세의 ‘베토벤 9번 환희의 송가’, 저 높고 푸른 하늘과의’ 하



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3번’ 내주는 살아 계시고의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45번’입니다. 교회음악이라 함은 이런 곡들의 유려함과 웅장한 경건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저의 편견은 오라토리오(성악의 일종으로 줄거리가 있는 곡의 모음이지만 배우의 연기가 없는 것은 신성하고 오페라는 풍성한 사람이 몸을 움직여 연기하니 천박하다고 주장한 ‘유럽 기독교의 천박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가요와 CCM은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저의 편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오라토리오에는 현대에 들어 세속적 오라토리오라 해서 교회적인 종교색채를 버리고 스트라빈스키 같은 작곡가에 의해 다양한 이야기를 음악에 담은 노력이 보여 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성악이 아닌 것이 되죠.

CCM은 많은 것을 담은 음악 장르인 것 같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지만 예배당에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찬미, 찬양’은 TV에 나오는 음악과 별개이라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소개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장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천박하고 볼품없다 말하는 것은 ‘조선 기독교의 천박함’일 것입니다. 기독교인 이 흑세무민을 찬양한 노래로 간주한 이 곡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음악적 편견과 마찬가지로 어떤 편견이 있다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물한 이 찬송가를 들으심이 어떨까요? 이 선교사의 선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방법과 계층의 벽과 사회의 편견과 맞서 싸운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신을 찬양하는 노래-찬송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하나님 아래 찬양을 부르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라는 평범한 진리를 나타내는 이 찬송은 유럽의 기독교를 무너뜨린 위대함을 지녔고 이 위대함을 요즘 교회청년들이 찬양하는 노랫말에도 같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부동의 자세를 풀고 성도들과 청년들의 찬양을 같이 한답니다. 신을 찬양하는 찬송가의 또 다른 의미는 편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함께 박수치고 찬양함으로 저의 천박함을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제가 통감하는 현실의 벽을 위로하는 듯 합니다. 제가 아닌 제가 느끼는 이 오만과 편견을 위로하는 듯하여 오늘도 찬양을 즐겁게 합니다.



나는 열애 중

솔로몬이 세계적으로 소문난
지혜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이었다.
이 마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고, 축복이다.

글 | 박명분 권사
취재 | 최혜경 집사



오늘 제게 하실 말씀이 뭐예요? 저도 드릴 말씀 있어요~

[본 문] 열왕기상 4장 29절-31절

- 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 30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 31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사람 예만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말씀묵상]

솔로몬은 다윗왕이 밋새바로부터 얻은 10번째 아들이다. 왕의 계승 서열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였지만 다윗이 후계자로 지명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려 구한 지혜에 더불어 부와 영광까지 응답을 받는다. 7년만에 성전건축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만큼 외교무역 정치, 경제 등 국력을 신장시켰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코자 했을 때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바탕엔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바닷가의 모래 같이 넓은 마음이다.

[적용]

하마터면 농칠 뻔 했다. 그 동안 열왕기서를 수없이(?) 읽었음에도 '지혜' 라는 단어에 가리워서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자세히 관찰하며 묵상하는 Q.T의 위력. 하나님과 연애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답장이다.

난 언젠가부터 한참 동안 우울했던 적이 있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말미암아 어느 성도와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이 우울의 이유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 물음에 오는 기가 막힌 말씀으로 답장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세계적으로 소문난 지혜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넓은 마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늘 부딪치고, 험겁고 상처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셨다. 이제 교회에서 앞선(?)자로서의 부담감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넓은 마음을 기쁘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 마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고, 축복이다. 이제 그 성도님을 만나면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받아줘도 계속 웃으면서 인사하리라. 다짐해 본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마음이다.

[기 도 : 정말 멋진 하나님]

드라마를 보다가 늦게 Q.T하게 되어서 죄송해요. ㅋㅋ 그래도 다른 어떤 마귀의 방해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좁은 마음을 버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넓은 마음 제게도 주세요.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 주세요. 알라뷰~~~ 하나님 꿈꾸며 잘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쁘고 건강한 봄을 위한 유용한 TIP

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따뜻한 햇살과 꽃비가 내리는 부드러운 설레임에 찬란한 감사를 보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길었던 겨울이 소리도 흔적도 없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입고 만물이 소생하는 눈부신 봄이 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일교차도 심해 지는 만큼 환절기를 겪으며 우리 몸도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환절기 불청객들을 막아낼 생활속의 몇 가지 정보를 간추려 소개합니다.

취재 | 문중순 성도

열이 날 때는 무즙을 마셔보세요

겨울에 독감과 싸웠다면 봄은 일교차가 큰 탓에 소소하고도 매서운 감기가 더 질리게 우리 몸과 마주하게 됩니다. 몸에 열이 날 때는 주로 시중에 판매되는 약을 복용하는데, 간단한 민간요법으로 해열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무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내요. 여기서 더운물을 붓고 조금으로 살짝 간을 해서 마신 후 꼭 자고 나면 열이 내리고 몸도 가쁜 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코막힘엔 배와 양파즙이 효과가 있어요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는 황사와 꽃가루 덕에 알레기와 기관지에 불편함을 느끼고 코가 막혀 힘들 때 모과나 배, 꿀 등의 뜨거운 차에 양파즙을 타서 마셔보세요. 또 뜨거운 물수건을 코와 이마 사이에 올려놓고 막힌 쪽이 위를 향하도록 옆으로 눕혀도 코가 뚫린답니다. 독한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맞기 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숯과 함께 보관하고 물 담금법으로 농약을 제거해요~*

산전이 푸르러 지는만큼 땅을 깨우고 일어난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제철을 맞아 나오게 됩니다. 바로 먹는 편이 가장 영양이 있고 맛도 있지만 냉장고 안에 보관해야 한다면 숯을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끓는 물에 숯을 데쳐 소독한 다음 햇볕에 말렸다가 야채와 함께 통에 담아 보관해보세요. 잘라놓은 야채

도 썩지 않고 오래가요. 시들해진 야채를 설탕과 식초물에 10~15분간 담갔다 꺼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씻을 때는 식초나 세제 보다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5분 정도 물에 담구어 두는 것이 가장 농약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달걀과 녹차로 구급 설사약을 만들어 보세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소화기관도 약해진답니다. 갑작스럽게 설사가 나는데 금방 약품 구하기 힘들 때 있죠? 그럴 때는 진하게 탄 녹차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때 날달걀을 녹차에 넣어 마시면 효과가 2배! 달걀을 녹차에 넣고 저으면 흰색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설사를 중지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랍니다.



봄철 간단한 피부관리

봄 햇살에 두드러져 보이는 잡티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다사마가 최고입니다. 세안한 얼굴에 소금기 뺀 다사마를 말려 갈아서 (혹은 다사마 가루를 고루 퍼 바른 후 가지를 덮고 다시 한번 덧발라 팩을 해보세요. 40분정도 지나 꾸덕꾸덕 마를 때 가지를 떼어내고 온타월, 냉타월로 번갈아가며 닦아내면 되지요. 섬유질이 풍부한 다사마가 피부점막을 자극하고 피부 분비를 억제해 잡티를 없애줍니다. (일명 동안 최화정 팩이라고도 한답니다.) 봄철 각질관리는 흑설탕이 효과적이에요. 간단하게 핸드크림을 한번 쓸 분량만큼 짜고 거기에 설탕 반 스푼을 뿌려서 섞으세요. 설탕과 크림을 골고루 섞은 후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 주면 되지요. 몰라보게 손이 고와진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다로션 등에도 적용하면 몸의 각질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제철음식을 맛있게 먹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적절한 운동 등으로 몸의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봄 햇살 맞으며 성령 충만한 법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며 행복한 봄 되세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시고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약속합니다

글 이광숙 집사 취재 이혜진 집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예수님을 영접한 이광숙, 곧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이광숙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0세에 동생을 따라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 공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됨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하나님 자녀로 살며 권세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줍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부르셔서 저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동행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결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이라는 고백으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보다 귀한 아들을 둘씩이나 주셨습니다.

셋째,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2013년 여름에 저의 친정 부모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나를 유교사상에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시모살이 5원을 하셨던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80세까지 사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저희 부부의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2013년 봄, 농사일을 하시던 친정어머니께서 풀뿌리와 씨름하다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시 여름에 길을 걷다 넘어지셔서 갈비뼈 골절로 입원하였는데 원인은 골다공증 때문이었습니다. 병상 중에 뇌경색(중풍, 오른쪽 마비)이 오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한 참 후에 깨달았습니다. 전신마비 중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복을 돕기 위해 경남 거제에 사는 언니 집에서 잠시 생활 하시던 어머니가 “폐암 말기로 3~4일 밖에 살지 못 하신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이송하는 도중 운명하실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랄 새도 없이 가족들은 장례준비를 하며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머니의 영혼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이른 어머니께 제가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장 달려갈 수도 없고 제가 어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등록된 지 1개월 된 교회의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아침 이른 시간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양에 영혼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병원 심방을 하셔서 복음 제시하셨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영접기도를 하시고 아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는 반신불수의 엄

마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팔, 다리가 움직여지며, 저녁시간에 당신의 손으로 밥술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기적이라고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에 강건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폐암 말기라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셨습니다. 의사로 하여 폐암으로 오진케 하셨습니다. 병명은 중증 폐렴이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의 좋은 요양원으로 치소를 옮겨 생활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요양원에서 어머니는 천국 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니와 형부의 신앙도 한 단계 높이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베후 3:9)

하나님의 구원은 침노의 역사였습니다. 85세의 친정아버지가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인지 시름시름 앓게 하셨습니다. 강하고 완고한 의지는 아픔도 이기고 남았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몇 주 앓다가 세상 끝내겠다” 생명의 주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신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곤비케 하셨습니다. 죽을 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생명을 정리하시던 아버지는 탈수 현상으로 혼미한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숨이 차서 말씀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오빠의 수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아버지는 강제 이송되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저희 가족은 또 다른 장례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게 하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만 만났던 목사님께 부탁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락처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제게 하나님은 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돕는 간병인에게 안부 전화를 할 때 저희 작은 오빠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오셔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이 동행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요양원 목사님께서 어머니와 동행하여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큰 오빠와 요양원 원장님은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자동차로 이송하여 아버지와 만남을 추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이송하기 위해 목사님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목사님께 복음제시를 부탁 드렸습니다. 생의 막바지에 계신 아버지는 침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의 몸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갑자기 설사를 침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배설물이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설사를 통해 더러운 병마를 몰아내셔서 몸을 서서히 회복시키셨습니다.

6남매의 가족들이 최후의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은 새 생명의 축복을 덩으로 또 주셨습니다. 동분서주하며 수고로 섬기는 큰 오빠에게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하였고 아버지의 회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셔서 큰 오빠까지도 구원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큰 오빠는 꿈속에서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가는 꿈을 똑같이 2번씩 꾸었습니다. 손에 성경을 들고 좁은 길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 일으켜서 교회까지 끝까지 자전거로 달려가게 하였답니다. 꿈과 아버지의 회복은 오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큰 오빠는 가정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교회에 등록하였으며, 지금은 새벽기도회와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1:2) 아버지의 영접기도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감격해 하며 눈물을 흘렸던 작은 오빠도 그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오빠 가정도,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믿음에서 떠난 불쌍한 남동생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넘치길 기대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시고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집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기도)하며, 교제(Q.T, 말씀읽기)하고 베를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지상명령인 전도인의 삶을 꿈 꿉니다. 주신 달란트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시작해 볼까요?

글 | 담임목사 김성택

기독교의 신앙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절망에 부딪쳐 비전을 놓쳐버리고 스스로 인생의 바닥에서 나뒹굴게 됩니다. 절망은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생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숨을 쉬고 먹고 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은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이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도 다시 시작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십자가에서 우리가 미래를 향하도록 도와줍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벼랑 끝에서 있습니다. 현실에 주저한다면 당신은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때를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벼랑입니다. 십자가의 벼랑 끝에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을 끝내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이별과 정리를 통하여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의 고통과 함께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중2병

취재 박종건 집사



크리스천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칼럼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2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2병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모두 힘들어 하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식으로 대책이 없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매일 매일이 전쟁이라고 머리 저으시는 선생님은 ‘아직 애다, 기대 하지 말라’, ‘뇌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부모님의 사기를 꺾어 놓으시기도 합니다. 어디부터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중2병의 사전적 정의는 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빗댄 단어이다. 사춘기 특유의 감수성과 상상력, 반항심과 허세가 최고조에 이르며 현실기피, 우울증,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출처, 위키백과]

고교생 장모(17)양은 자신의 중2를 이렇게 묘사한다. “부모?형제가 안 보이죠.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선 선생에게 질 수 없다는 허세, 엄마에게 밀릴 수 없다는 오기, 패거리에대한 집착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죠.”

“그냥 저 말고는 세상이 다 병신 같고 왜들 사나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되고, 애들이랑 모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 됐지?’라며 끝도 없이 선생님 욕을 해대요. 찌질한 애들은 왕따시키고, 꿈도 없고 그냥 불안하기만 한데, 또 잘나가 보여야 하니까 교복 줄이고 한쪽 주머니엔 아이라이너, 다른 주머니엔 립틴트가 기



본이죠.” [출처, 중앙일보 4.6 “현장속으로 중2도대체 넌 누구냐”]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자녀교육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아버지는 물질공급원으로 전락하고, 어머니는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키는 훌쩍 크고 있는데 지적 수준은 최고의 명문대로 진학하기를 바라면서, 과연 이 아이의 영성과 마음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출처,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오인숙저]

지난 1월 21일 영흥교회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마상욱 목사님은 아이들 양육에는 영성(Spirit), 심력(Heart), 지성(Mind), 체력(Body)을 조화롭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교육은 지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육체는 성장하고 자아는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데, 영성과 심력이 부족하니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이 중2병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좋은 인품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화목한 가정의 품에서 지혜롭게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 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어떤 분은 가정예배를 추천한다. 부모의 주관이 아니고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심어진 가치관은 그 무엇보다 강력하다는 것이다. 혹은 기도와 중보를 말씀하신다. 기도를 통해 아이와 같이 극복한 시련으로 가정이 더욱 단단하여 지는 경험을 전하기도 하신다. 중2을 넘기신 우리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자. (가명 사용)

도경이엄마의기도

자녀를 둔 엄마라면 중2만 힘든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의 연속인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시절엔 공부도 제법 잘하고 매우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서서히 사춘기를 앞더니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초절정의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서로 지지 않으려는 신경전은 대단했다.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 하던 아들은 반항적으로 변해갔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싸워서 선생님께 불러 간 적도 있다. 그러면서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정말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또 한번 공부 문제, 학교생활로 서로 신경전이 오갈 때였다. 자기도 매일 기도하

고 회개하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되지 않는다며, 세상 친구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 풀린다면서 그 동안의 생활이 힘들었던지 울기 시작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 한 칸이 절렁 내려 앉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해 준 게 뭐가 있을까? 내 자신에게 반문하고 있었다. 말로는 ‘신앙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 주세요’, ‘도경이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왔지만, 나의 실제 모습은 세상 부모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등생으로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커주길 바랄 뿐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더욱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경이를 더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주안에서 행복해 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럴수록 주님은 도경이와 많은 대화를 하게 하였고, 도경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도경이를 바라보게 하셨다.

지금은 서로 이해해주고 소통하고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리며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주님 오늘도 도경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실족치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엄마의 기도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안에서 도경이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 줄 수 있는 엄마로 남게 하소서. 아멘.

사춘기 시절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가 늦은 밤 자고 있는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시는 간절한 기도에 감동받아 닫혔던 마음을 열고 사춘기를 극복했다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 쑥쑥 커가는 자아, 성적, 친구 관계 등 지독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도록 간구해야 한다. 닫혔던 마음을 열어 깊은 고민과 아픔을 부모와 함께 나누며, 가정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실버대학 2014년 개강

글 | 김윤남 교사 // 취재 | 박종진 집사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평안 가운데 쉼을 얻게 하고, 영적 성장을 돕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이면 곱게 단장하신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유아실로 오십니다. 실버대학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성경쓰기, 미술치료, 한자쓰기, 비누 만들기, 송편 만들기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신의 피로를 풀어 주고 노후 활기찬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후에 제공되는 점심 식사 또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시간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식사가 너무도 맛있기 때문입니다.

크신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시어 지역주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분들을 평안 가운데 쉼을 얻게 하고, 영적 성장을 돕는 일을 하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실버대학 프로그램

- 10:30 ~ 10:45 만남, 교제, 친교 출석체크(이름표 착용)
10:45 ~ 11:00 찬양, 찬양율동
11:00 ~ 12:00 성경쓰기,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비누 만들기, 뜨개질 등
12:00 ~ 13:00 맛있는 점심식사

• 운영 3~7월, 9~11월 2학기제 • 장소 유아실



당신을 영흥교회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흥교회는 행복한 예배자들을 위한 **신앙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땅끝 선교의 비전과 삶의 회복을 위한 **나눔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영성회복을 위한 **믿음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진리로 믿고 실천하는 **말씀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랑공동체**입니다.

영흥교회에 신앙운동은 신앙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당신을 섬기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살구나무 이벤트

살구나무를 읽고 느낀 점, 바라는 점을 보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 2014년 3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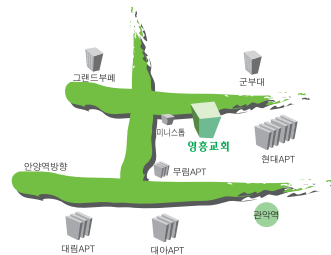
응모요령 : 교회 사무실 혹은 youngch81@gmail.com

(이름, 전화번호를 같이 남겨주세요)

결과발표 : 2014년 6월호

살구나무를
읽고

영흥교회 위치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 소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로 510번길 9

대표전화 : 471-7822, 8922 / FAX, 472-3967

홈페이지 : www.youngch.or.kr

영흥교회 예배시간

새벽기도	1부	5:00	시온성전
	2부	6:00	본당
주일 낮	1부	7:30	본당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오후	2:30	본당
삼일밤	오후	7:30	본당
금요일야	오후	9:00	본당
유치부	주일	11:00	유치부실
유년부	주일	11:00	시온성전
초등부	주일	11:00	초등부실
중고등부	주일	9:00	중고등부실
청년부	주일	9:00	청년부실